



이 임 차  
(울산울주지부)

올해엔 임직원 연수회가 충남 온양에서 개최되었다. 전에 두번 참석 해본 경험이 있어서 호기심보다는 좀더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양돈협회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바르게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양돈협회에 근무하면서도 양돈에 관하여, 또 협회의 기능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양돈협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자세 등을 알게 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여 양돈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수 있게 된것같다. 이번 교육 역시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특히 최 중태 교수님의 강의 내용중 생명의 가치는 살아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들의 정신이 맑고 건전하게 살아 움직여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과, 내가 어떤 조직에 있으므로 해서 그곳에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는 아닌가? 하는 중요한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다. 자신의 생활에 반성할 점과 시정해야 할 점들이 참으로 많았다.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이 철우 강사님의 “나와 너와 그가 합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힘을 합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또한 분임토의 시간에는 어느 시간보다도 진지한 모습으로 의견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진단하던 지부 여직원들의 다부진 모습 속에서 정말 양돈산업 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날 오후에는 단합대회 및 친목회를 온양 민속박물관 내의 잔디밭에서 가졌다. 다양한 상품과 게임준비를 중앙회에서 해와 함께 웃고 즐기던 것은 잊을 수가 없다.

마지막날 임원·지부장 확대연석회의가 열렸으며 총무급 임원들과 여직원들이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질서정연한 진행과 진지한 모습으로 모든 문제를 협의하시는 모습 또한 양돈협회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각 지부의 여직원들이 많이 참석치 않았던 것과 연수기간중 숙식문제로 불편을 겪었는데, 중앙회에서 신경을 써서 다음엔 더 좋은 환경에서 다같이 참석하여 알차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직원들의 교육이 따로 준비가 되어서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업무처리에 대한 바른이해, 교양면, 돈육 요리부분까지 교육을 받아서 어딜 가더라도 양돈협회 직원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중앙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해마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새로와 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87년은 더욱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글재주가 없어서 그때의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음이 안타깝기만 하다.